

오미야오도리

‘오미야오도리’는 오본(선조의 영혼이 현세에 돌아온다고 알려진 불교의 제사가 있는 날)에 마니와에서 진행되는 축제의 중심이 되는 전통적인 춤입니다.

매년 여름, 3일간 일본 전국에서 오본의 축제가 개최됩니다. 오본은 문화 행사 중에서도 최대의 공휴일 중 하나이며, 어린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선조의 무덤에 공물을 바칩니다. 오본의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면 돌아온 선조의 영혼을 맞이하기 위한 본오도리(집단으로 추는 활기찬 춤)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북을 울리고 구호를 외치는 본오도리는 활기찬 행사입니다.

하지만 마니와에서 보실 수 있는 본오도리는 다른 지역과 달리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입니다. 오미야오도리라고 불리는 이 춤은 느긋하고 섬세한 동작으로 약간의 구호와 손에 든 북 하나만을 사용합니다. 춤추는 사람의 손 위치나 앞뒤로 밟는 스텝은 조심성 많은 여우의 움직임을 따라 한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여우를 농촌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인 비와 풍작의 상징으로 간주합니다.

이 춤이 풍작으로 이어지는 것은 농업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오미야오도리는 허루젠의 청춘들의 만남과 인연을 맺는 기회이기도 하며, 이곳에서의 만남이 결혼이나 다음 세대에 지역 사회를 지탱할 아이를 늘리는 일로도 이어졌습니다. 자손 번영을 바라는 마음은 이 춤의 보기 드문 한 장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기자 2명 중 1명이 참깨를 으개는 절구통을, 다른 한 명이 목재 절구통을 들고 성기에 빗대어서 남녀 화합을 표현합니다. 이 축제는 결혼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 외에 관습이 완화되는 시간이기도 하며, 축제 기간에는 자유로운 연애가 허용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혼외자를 임신한 경우, 모친에게 배우자가 있거나 없어도 모친이 신에게 받은 선물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오미야오도리는 7월과 8월 며칠에 걸쳐 마을 내 여러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춤 동작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눈이 높아진 현지인은 오미야오도리를 추는 방식을 관찰만 하면 그 사람의 거주지를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8월 15일, 후쿠다 신사에서 개최되는 메인 이벤트에서는 분위기가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 불꽃놀이도 진행됩니다. 이 신사는 ‘오미야사마’라고도 불리며, 오미야오도리라는 이름은 여기서 유래되었습니다. 신사의 내진(본존 등을 안치해둔 곳)에는 지붕이 덮인 무대가 있으며, 이러한 류의 건축적 특징을 지닌 현존하는 건물 중 중에서는 보기 드문 경우입니다. 이 무대는 1년 중 대부분의 기간에 비바람을 헤치면서 사람들이 기도를 드리거나, 여러 개의 동전을 새전함에 던져 넣는 장소이며, 축제 기간은 새전함을 철거하고 필요 없는 것을 모두 정리하여 춤추는 사람을 위한 장소가 됩니다.

오미야오도리의 또 하나 중요한 개최지는 ‘요시모리도’라고 불리는 목조로 된 작은 사당입니다. 400년 전부터 있던 목제 아미타불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사당 뒤쪽과 오른쪽(새로운 창고의 반대쪽)에는 소박한 크기의 무덤이 늘어서 있으며, 가장 오래된 것은 14세기 초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곳이 오랜 기간 신성한 장소로 유지되어 왔다는 증거입니다.

그 외 오미야오도리의 독특한 특징으로 ‘시리게’를 들 수 있습니다. 시리게란 무대 위에 매달린 직사각형의 큰 제등 바닥에 장식으로 매달린 종이를 오려 내서 만든 작품입니다. 손으로 뜯은 일본 종이를 정성을 담아 오려 내서 만든 작품은 과일과 채소 같은 단순한 디자인부터 우키요에 목판의 거장이 만든 작품에 필적할 정도인 기모노를

입은 여성이나 풍경이 정교하게 디자인된 작품까지 다양한 사물이 표현되었습니다. 이 정교한 작품은 주민들이 따뜻한 기후를 꿈꾸는 눈 덮인 겨울이나 즐거운 축제 기간에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름다운 시리게의 많은 작품과 오미야오도리 영상은 히루젠 향토박물관에서 1년 내내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오미야오도리의 기원에 관한 정확한 정보는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졌지만 아주 먼 옛날 궁정에서 추던 춤을 따라 하는 것을 보아 1000년 이상의 역사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마니와는 아주 최근까지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었기에 이 본오도리의 스타일은 몇 세기 동안 변하지 않고 전승되어 왔습니다. 1997년 이 춤 특유의 지역성과 현대 본오도리의 선구적인 존재로서 해온 역할이 좋은 평가를 받아 오미야오도리는 정부가 중요 무형 민속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